

임플란트 분야 편하고 진보된 수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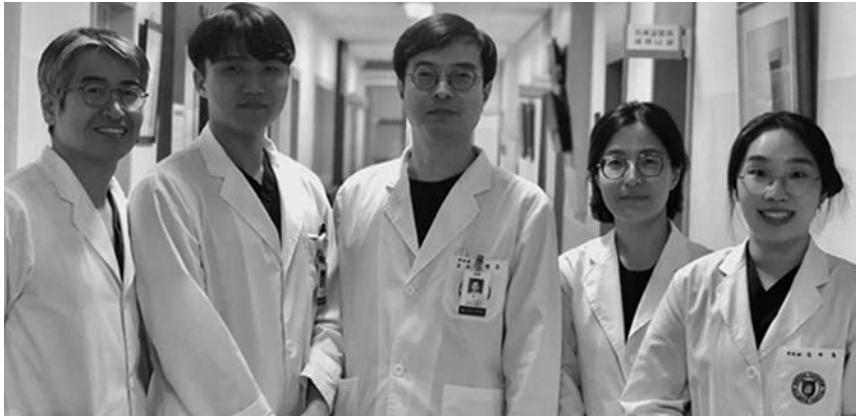
원광대 치과대학 교수 및 전공의 공동 신개념 핸드피스·드릴 고안 특허 출원 등록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교수와 치과대학병원 전공의가 공동으로 임플란트 핸드피스 개발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해 등록했다.

특허에 참여한 교수 및 전공의는 치주과학교실 유형근, 피성희, 강희영 교수와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강명범, 장재원, 조승경, 김아름 전공의로 이들은 2016년부터 치과기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임플란트 분야에서 더욱 편하고 진보된 수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핸드피스와 드릴을 고안해 냈다.

6개월에 걸친 아이디어 회의와 공동연구 과정을 거쳐 이번에 특허 등록한 임플란트 핸드피스는 기존 핸드피스와 기능 및 사용방법을 달리한 진보된 형태로써 디지털 치의학이 발전하면서 치과의사의 수술테크닉을 좀 더 간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컴퓨터 조종 수술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치주과학뿐만 아니라 예비생들에게 칭의학을 강의하는 연혁근 교수는 “지금은 단일 임플란트나 간단한 증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아이디어를 보강해 여러 개의 임플란트 수술 시에도 사용 가능한 핸드피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진료만 하는 치과의사가 아닌 새로운 기구와 기자재를 개발해 치과 의료산업발전에도 기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교수와 치과대학병원 전공의가 공동으로 임플란트 핸드피스 개발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해 등록했다.

여하고, 우리가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치과의사들의 진료술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공의들에게 싫어주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기술 연구에 공동 참여한 치주과 조승

기 전공의는 “우리 같이 아직 임플란트 수술에 많은 경험이 없는 치과의사들이 가급적 편하고 쉽게 수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의신=장양원기자



순창경찰서-교육지원청, 사회적약자 지원 위한 업무협약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와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수)은 chlms 순창경찰서 경찰서장실에서 사회적약자·위기청소년 지원 및 警·學 공동 치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위기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서비스를 공동 진행함으로써 순창 관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학교 적응을 목표로 한다.

경찰서와 교육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에게 Big Dream!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희망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사회의 치안활동(학교 예방 순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 나눔 실천 기회를 제공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장수군, 읍면 공직선거법 순회교육 실시

장수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3월 5일부터 산서면을 시작으로 4월 17일까지 공무원,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첫날인 3월 5일은 산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직원, 마을이장, 주민자치위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이종영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행위 및 예외규정 ▲기타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공직자 및 주민 대표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남 행정지원과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공무원,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선거 실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3월 23일 장수군아카데미 교육일정에 맞춰 군청·직속기관·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증집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서 모양지구대, 예약순찰제 주민호응 높아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모양지구대(대장 이상주)는 예약순찰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예약순찰제는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농경지에서 미처 집으로 옮기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시간과 장소를 지구대에 전화나 방문을 해 예약하면 그 시간에 맞게 경찰관들이 순찰을 강화해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청사 봄맞이 꽃밭 가꾸기 활동펼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최근 맑은물봉사대를 주축으로 직원 30여명과 함께 맑은물사업본부 청사 새봄맞이 꽃밭 가꾸기 활동을 펼쳤다.

맑은물봉사대는 2012년부터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수도경진원을 대상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 조직으로 이번 꽃밭 가꾸기 활동은 유난히 주목되었던 지난 겨울을 지나 우리 앞에 어김없이 찾아온 새봄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계획됐다.

앞서 맑은물봉사대는 지난 2012년부터 자연정화 활동 및 불우아웃돕기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권혁신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상수도 사업장 등 우리 주변을 계절별 꽃으로 아름답게 꾸준히 가꿔 깨끗하고 품격 있는 활기찬 전주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채규남기자

정읍 칠보면, 노인 일자리 발대식

칠보면은 올해 본격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일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즐거운 쉼터 가꾸기’ 50명과 ‘노노케어-도시락배달’ 3명 모두 53명의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추진

되는 사업 전반을 안내하고 주의 사항 등도 전달했다.

특히 전리복도 교통문화연수원과 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등도 소개하고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북면,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안전교육 실시

정읍시 북면은 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반을 소개하고 팀장의 역할, 부정수급 사례 교육 등 사업 참여 시 알아야 할 내용 등도 안내했다. 또

지진과 화재 대비, 심폐 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면 관계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어르신들께서 사업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영근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